

청소년기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인 - 고교생을 대상으로한 심리적 특성의 탐색 -

윤 성 립 윤 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의 하나인 자살행동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어떤 변인과 관계를 맺고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인이 무엇인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고등학교청소년 634명(남자 : 305명, 여자 : 329명)을 대상으로 자살생각경험과 그 심각성을 조사하고 그들의 정신건강 수준, 자아정체감, 학업성적, 학업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및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하여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자살생각경험집단은 낮은 정신건강 수준과 학업에 대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심하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라는 특수한 요인으로 인해 자아정체감, 부모의 양육태도등 몇가지 점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었다. 또한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던 여러 변인들 중에서 강박증과 사회적 적응능력, 지각된 부모의 친애적 태도 및 GSI(General Severity Index)가 자살생각의 심각성 정도를 예언하는 가장 두드러진 변인이었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생청소년에서의 자살생각 경험이 공통적인 몇몇 변인에 의하며 그들 생활의 부적응 정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살’은 인간이 지닌 가장 극단적인 문제해결의 한 방법으로 모든 연령층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청소년기는 그들이 지닌 발달적 특징에 의해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기 쉬운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전환기로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주변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일탈행동이나 사회-심리적 부적응 상태 및 심지어 자살행동의 가능성이 큰 시기이다. Emile Durkheim(1951)은 청소년기의 자살원인을 아노미

(anomic suicide)로 보았다. 아노미에 의한 자살은 청소년이 갑자기 변화된 심리-환경적 상황속에서 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이에따라 그는 행동통제에 실패하고 여기서 생기는 기대와 성취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자살행동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성(sex)적 성숙과 더불어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발생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자아(self)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경험하고 가치관을 재확립하며 자율성을 발달시키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계획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하

게 되는데 청소년기의 자살은 이러한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다 (Wodarski & Harris, 1987).

결국 이러한 입장들은 모두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에 내재한 심리적 역동성을 청소년기에 겪는 급격한 심리-환경적 변화와 그들이 당면한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충동적 행동으로 개념화시키고 있다.

1960년대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청소년의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되었다(Gailand & Zigler, 1993 참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심리적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몇가지 심리-환경적 변인이 밝혀졌다. 이때 심리적 원인은 우울증과 자아정체감이 두가지 중요한 변인인데 특히 우울증은 정신건강 측면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다. 우울증은 청소년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발달적 특징의 하나지만, 그 강도(intensity)와 심도(severity)가 지나칠 때 이는 정신건강, 특히 청소년기의 자살에 대한 생각 및 자살 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Calhoun, 1972; Freidman 외, 1984; Miller, 1975). 또한 위축, 흥미상실, 충동성 및 권위주의적 부모에 대한 적개심과 공격성 등과 같은 성격특성을 지녔을 경우 자살행동의 가능성이 높다(이만홍, 이성훈 및 신동범, 1982; Blumenthal & Kupfer, 1984). 특히 이만홍 등의 연구(1982)에서는 한국인의 자살행동의 기제를 가족관계 및 유교적 문화의 특수성에서 오는 억압된 공격성으로 보았다. 즉, 지배적이고 가학적이며 완고한 부모에 대한 적개심과 '효'에 의해 억압된 상태가 순간적으로 파괴되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가학적 행동으로 보았다.

심리적 원인의 두번째 변인인 자아정체감형성은 이 시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으로써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정체감은 자율

성의 발달, 가치관의 확립,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독립 등을 통해 형성되며, 이 시기에 겪게되는 갈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편이나, 몇몇 연구에 의하면 자아정체감형성문제가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Pfeffer(1979, 1981)는 임상장면에서 접한 여러명의 자살 시도 아동의 치료 경험을 통해 부모의 경직되고 완고한 양육방법이 아동의 자아분화를 방해하여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 형성에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아동이 자신의 안정되고 분화된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병리적 동일시(pathological identification)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 결과 형성된 부모에 대한 적대감이 자녀에게 죄책감을 유발시켜 부정적인 자기지각과 무력감을 일으키고 아동의 자살행동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또한 Wodarski와 Harris(1987)도 Pfeffer와 동일한 시각에서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설명하였다.

한편 청소년 자살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변인중 가장 많이 논의되는 변인이 가정과 학교다. 특히 부모 자녀관계가 애정부족 및 비지지적이고 공격적일때, 부모가 우울증·불안·낮은 자기존중감등 부적절한 성격적 특징과 자살행동이나 생각을 지닐때, 그리고 가족구성원에 있어서 부모의 부재나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와해 및 결손가정(single-parents households)일 경우 자살행동의 가능성이 높다(Friedrich, Reams, & Jacobs, 1982; Feden, 1982; Howton, 1982; Litt, Cuskey, & Rudd 1983; Tischler & McHenry, 1982).

뿐만아니라 학교에서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을 사귀고 그들의 사회적 능력과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기의 학교는 더 나은 학업능력을 요구하는 장소로서 이 시기에 학교에서 받는 경쟁과 성취에 대한 압력과 스트레

스는 청소년기의 자살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있다 (원호택과 이민규, 1987; Davis, 1983; Madison, 1978).

이와같이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은 연구자에 따라 여러가지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각각 달리 연구되었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생존자의 표본크기가 적고 비교집단 또는 통제집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살문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편이다.

최근 표본크기가 작을수록 오는 문제해결의 한 방안으로써 일반인이 지닌 '자살에 관한 생각 (suicidal ideation)'을 연구하여 자살행동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Paykel, Myers, Lindenthal, & Tanner, 1974; Swanson, Harter, Breed, Serigner, & Harden, 1971; Vandivort & Locke, 1979). 이때 기본가정은 '자살에 대한 생각'에서 '자살행동'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연속선이 있다는 것이다. Paykel 과 그의 동료들(1974)은 일반인을 대상으로하여 자살에 대한 가능성을 '자살에 대한 생각만 지닌 차원', '자살 위협 차원', '경미한 정도의 자살시도차원', '심각한 정도의 자살시도차원'의 4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자살시도의 가능성이 높은 차원에 표시한 사람들은 그보다 경미한 가능성에도 모두 표시하였다 (Paykel 등, 1974). 또한 Carlson 과 Cantwell(1982)은 일반인들이 지닌 자살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고 후속 연구로서 이들의 자살시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살에 대한 생각이 심각했던 사람들의 42%와 경미했던 사람의 34%가 후에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던 집단에서는 한명도 자살시도를 하지 않았다 (Carlson & Cantwell, 1982). 이와같은 결과를 통해 Simons 와 Murphy(1985)는 아주 경미한 수준의 자살에 대

한 생각이라도 후에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되거나 바로 자살기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자살에 대한 생각의 심각성보다 '자살에 대한 생각' 그 자체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자살충동이나 이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후의 자살시도의 한가지 예언지표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살에 대한 생각(suicidal ideation)을 일으키는 원인을 정의함으로써 자살행동의 유발 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Beck, Kovacs, & Weissman, 1979; Simons & Murphy, 1985).

본 연구의 목적은, 자살행동의 한가지 위험지표인 '자살에 대한 생각'과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살행동 및 자살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다고 밝혀진 몇가지 변인들-개인의 심리적 부적응, 자아정체감의 형성, 학업요인 및 가정환경변인-이 실제 청소년의 자살행동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밝히려는 것이다. 이때,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가정환경요인에는 부모-자녀의 부적절한 관계형성, 부모의 성격적 결함 및 가정불화요인이 있었다. 그러나 가정의 와해현상은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그 발생빈도가 적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켰다. 또한 가정불화나 부모의 부적절한 성격은 부모-자녀간의 관계에서 반영될 것이며, 자살의 주체가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변인으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하였다.

방법

피험자

서울의 6개 고등학교 1, 2학년 남녀학생 694명 (남자 305명, 여자 32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하여 1989년 11월 15일부터 27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피험자의 배경을 보면 종교는 기독교

교가 가장 많아 남학생의 32.1%, 여학생의 56.2%를 차지했으며, 불교(남: 14.1%, 여: 6.4%), 천주교(남: 8.2%, 여: 6.4%)의 순이었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남: 41.3%, 여: 27.1%). 사회 경제적 수준은 대부분 자신을 중류층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남: 86.2%, 여: 85.1%), 양친 모두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며(남: 92.5%, 여: 93.9%), 아버지 부재(남: 6.6%, 여: 4.3%)와 어머니 부재(남: 0.3%, 여: 1.5%)도 극소수 있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각 개인의 배경 자료와 청소년이 지닌 자살에 대한 생각 유무와 그 정도의 측정, 그리고 기타변인의 측정을 위한 검사 도구로 이루어져 있다.

(1) 자살에 대한 생각 척도: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을 지닌 사람은 다음 단계로 '자살에 대한 생각척도'에 응답하도록 한다. 이 척도는 자살 시도 전에 자살에 대한 생각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자기과파적인 생각이나 희망을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하여 현재 지닌 의식적인 자살의도의 정도를 수량화시킨 3점 척도이며 19개의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본 연구를 위해 Beck의 척도를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후 심리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문장의 이해 및 평점척도 사용상의 문제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계수(Crobach's alpha)는 .84였다.

(2) 간이 정신진단 검사: 간이 정신진단 검사는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를 평가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Symptom Check List (SCL-90)(김광일 과 원호택, 1983)를 이훈구(1986)가 요인분석하여 47개 문항으로 축소제작한 간이진단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검사는 원래의 SCL-90과 같이 신체

화, 강박증, 대인 예민증, 우울증,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의 9가지 증상차원을 평가하며, 전체심도지수(증상차원합계: general severity index: GSI)로써 개인의 일반적인 심리적 고통(psychological distress)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계수(Crobach's alpha)는 .96이었으며 각 하위척도별로는 신체화: .72, 강박증: .82, 우울증: .71, 불안신경증: .90, 적대감: .84, 대인예민성: .71, 공포불안: .66, 편집증: .76, 정신증: .75 였다. 이 검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도구가 비표준화된 것이었으므로 각 하위척도별로 평균치를 환산하여 평균치 간의 차이를 검증해보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통계적 차이가 정상범위 또는 병리적인 차이중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 구별해 주지는 못하지만, 각 집단의 비교를 통해 두 집단이 각 증상차원과 전체심도지수에서 어느정도 수준인가를 비교가능하게 해준다.

(3) 자아정체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에 대한 Erikson의 정의와 Marcia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하여 최정훈, 이훈구 및 한종철(1988)이 제작한 정체감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42개 문항이 6개의 하위척도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42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계수(Crobach's alpha)는 .94였으며 하위척도별로는 가치: .60, 사회적 적응능력: .96, 독특성: .86, 자아수용: .70, 미래계획: .74, 사회성: .62, 자율성/자신감: .76이었다.

(4) 학업에서 받는 스트레스 측정도구: 청소년들이 겪는 학업과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의 양을 조사하기 위해 주영숙(1984)이 제작한 학업 시험능력에 대한 불안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시험사태나 경쟁생활에서 열등의식을 갖게되는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로 본 연구에서 신뢰도계수(Crobach's alpha)는 .80이었다.

(5)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척도** :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재은(1974)의 '가정환경진단척도'중 가정의 분위기 영역과 부부간의 조화영역을 제외한 하위영역 「부모와 자녀의 접촉/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통제와 영향력(2가지 영역 포함)/양육 및 보호/자녀에 대한 비판의 정도/설명태도/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관계」의 24개 변인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를 따로 분리하여 평정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 차이를 분리 측정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계수(Crobach's alpha)는 아버지와의 관계 .80, 어머니와의 관계 .81이었다. 또한 varimax 회전방식의 주요인 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결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4가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5가지의 요인이 나왔다. 그 첫째 요인은 '자녀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주요 내용으로 아버지의 경우와 어머니의 경우가 비슷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둘째요인은 아버지의 경우 '통제'요인과 일치하고 있으나 어머니의 경우 '자녀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주내용을 이루고 있다. 세째요인은 아버지의 경우 '과보호'요인과 일치하나 어머니의 경우 '친애'요인과 일치한다. 네째요인은 아버지의 경우 '친애'요인이, 어머니의 경우 '엄격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경우에서만 다섯째 요인으로 '자율성' 요인이 나왔다.

결과

본 연구의 응답자 중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자살생각경험집단)은 전체 634명중 354명(55.8%)이었으며, 이중 남학생이 153명으로 전체 남학생 응답자의 50.2%였으며 여학생은 201명으로 전체 여학생의 61.1%를 차지했다. 자살생각경험 집단과 자살생각비경험집단이 각각의 변인에서

보인 집단간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집단간 차이 검증

일반적인 심리적 부적응 상태와 세부적 증상차원을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한 간이정신진단 검사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자살생각 경험집단의 점수가 높았다. 표-1.

(2) 자아정체감 검사의 차이 검증

청소년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의 하나인 자아정체감 검사결과, 그 하위 척도로 사회적 적응 능력, 자아수용, 미래계획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표-2.

(3) 학업요인에 대한 차이 검증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청소년에게 주고 있는 학업스트레스와 개인의 학업성적(등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 두가지 학업요인에 대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학업성적(등수)은 두 집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학업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었다. 표-3.

(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차이 검증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에 관계하는 부모-자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살생각 경험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 태도영역에서 남자 청소년은 친애, 여자 청소년은 수용적 태도, 과보호, 친애차원에서 각각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가 느끼는 아버지와의 접촉 정도와 훈육방침에서 느끼는 이해와 노력의 정도가 자녀의 자살생각에 중요하다. 표-4.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수용적 태도와 자율성에서 여자 청소년

표 1. 간이정신 진단검사의 집단간 차이검증

| 성별 \ 소검사 집단 | 신체화 | 강박증 | 대인 예민성 | 우울 | 불안 신경증 | 적대감 | 공포 불안 | 편집증 | 정신증 | GSI | |
|----------------|----------|-----------|-----------|-----------|-----------|-----------|----------|---------|-----------|-----------|-------|
| 남 | 자살생각 | 1.75 | 2.15 | 1.90 | 2.11 | 1.91 | 1.75 | 1.75 | 1.61 | .88 | 1.95 |
| | 경험집단 | (.69) | (.69) | (.63) | (.87) | (.81) | (.88) | (.88) | (.73) | (.85) | (.59) |
| | 자살생각 | 1.56 | 1.85 | 1.72 | 1.68 | 1.55 | 1.59 | 1.59 | 1.40 | 1.49 | 1.74 |
| | 비경험집단 | (.66) | (.72) | (.67) | (.73) | (.62) | (.80) | (.80) | (.57) | (.65) | (.48) |
| F값 | 5.57* | 13.29*** | 5.85* | 21.88**** | 17.34**** | 17.90**** | 2.16 | 6.99** | 18.31**** | 7.10** | |
| 여 | 자살생각 | 1.75 | 2.05 | 1.87 | 2.19 | 1.93 | 1.85 | 1.74 | 1.56 | 1.82 | 1.91 |
| | 경험집단 | (.69) | (.66) | (.59) | (.82) | (.71) | (.72) | (.74) | (.67) | (.74) | (.51) |
| | 자살생각 | 1.43 | 1.71 | 1.52 | 1.58 | 1.42 | 1.48 | 1.37 | 1.25 | 1.39 | 1.55 |
| | 비경험집단 | (.56) | (.59) | (.47) | (.54) | (.52) | (.56) | (.54) | (.46) | (.54) | (.37) |
| F값 | 12.16*** | 17.92**** | 33.00**** | 55.38**** | 46.49**** | 23.19**** | 19.11*** | 16.98** | 30.85**** | 28.61**** | |

() 안은 표준편차 *p<.05 **p<.01 ***p<.001 ****p<.0001

표 2. 자아정체감 검사의 집단간 차이검증

| 성별 \ 소검사 집단 | 가치 | 사 회 적 적응능력 | 독특성 | 자아 수용 | 미래 계획 | 사회성 | 자율성 자신감 | 자아정체감 총 점 |
|----------------|-------|---------------|-------|-----------|----------|-------|------------|--------------|
| 남 | 자살생각 | 3.48 | 3.70 | 3.28 | 2.61 | 3.22 | 2.92 | 3.14 |
| | 경험집단 | (.55) | (.53) | (.67) | (.72) | (.80) | (.62) | (.49) |
| | 자살생각 | 3.50 | 3.83 | 3.28 | 3.00 | 3.54 | 3.00 | 3.30 |
| | 비경험집단 | (.49) | (.53) | (.63) | (.67) | (.76) | (.63) | (.41) |
| F값 | .156 | 4.47* | .00 | 23.61**** | 12.51** | 1.2 | 3.38 | 8.59* |
| 여 | 자살생각 | 3.40 | 3.80 | 3.18 | 2.58 | 3.29 | 2.91 | 3.11 |
| | 경험집단 | (.52) | (.53) | (.67) | (.61) | (.72) | (.61) | (.44) |
| | 자살생각 | 3.41 | 3.95 | 3.25 | 3.08 | 3.52 | 3.00 | 3.29 |
| | 비경험집단 | (.48) | (.45) | (.61) | (.59) | (.79) | (.57) | (.39) |
| F값 | .056 | 7.22** | .97 | 53.93**** | 7.34** | 1.94 | 4.80 | 14.24*** |

() 안은 표준편차 *p<.05 **p<.01 ***p<.001 ****p<.0001

표 3. 학업요인에 대한 차이검증

| 성별 | 집단 / 검사 | 학업성적(등수) | 학업스트레스 |
|----|---------|----------|-----------|
| 남 | 자살생각 | 24.13 | 2.37 |
| | 경험집단 | (15.62) | (.43) |
| | 자살생각 | 21.31 | 2.24 |
| | 비경험집단 | (13.00) | (.44) |
| | F 값 | 2.59 | 6.56* |
| 여 | 자살생각 | 20.64 | 2.49 |
| | 경험집단 | (13.31) | (.46) |
| | 자살생각 | 17.80 | 2.26 |
| | 비경험집단 | (13.28) | (.46) |
| | F 값 | 2.26 | 18.75**** |

()안은 표준편차

*p<.05 ****p<.0001

**** p<.05

표 4.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차이검증

| 성별 | 집단 / 검사 | 수용적태도 | 통제 | 과보호 | 친애 |
|----|---------|-----------|-------|--------|--------|
| 남 | 자살생각 | 4.27 | 3.76 | 4.16 | 3.59 |
| | 경험집단 | (.95) | (.57) | (1.01) | (1.01) |
| | 자살생각 | 4.44 | 3.79 | 4.36 | 3.86 |
| | 비경험집단 | (.89) | (.57) | (.90) | (.97) |
| | F값 | 2.32 | 2.12 | 3.25 | 5.43* |
| 여 | 자살생각 | 4.20 | 3.78 | 4.32 | 3.56 |
| | 경험집단 | (.94) | (.54) | (1.03) | (1.08) |
| | 자살생각 | 4.60 | 3.87 | 4.61 | 3.81 |
| | 비경험집단 | (.82) | (.43) | (1.00) | (1.09) |
| | F값 | 14.13**** | 2.64 | 6.05* | 4.04* |

()안은 표준편차

*p<.05 ****p<.0001

의 경우 수용적 태도, 과보호, 친애, 자율성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비판과 훈육, 애정의 문제 및 가정의 자녀중심성이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5.

(5) 자살생각의 심각성과 자살생각경험 관련변인과의 중다회귀분석

본 연구의 두번째 목적은 청소년이 지닌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 및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자살생각경험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살에 대한 생각척도’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앞서 자살생각경험집단과 비경험집단간에 차이를 보인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소거법(stepwise)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남자 집단의 경우 강박증, 사회적 적응능력, 자녀가

표 5.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차이검증

| 성별 | 집단 \ 검사 | 수용적태도 | 과보호 | 친애 | 엄격성 | 자율성 |
|----|---------|-----------|--------|--------|-------|--------|
| 남 | 자살생각 | 4.13 | 4.92 | 4.38 | 4.08 | 4.15 |
| | 경험집단 | (.62) | (.91) | (1.29) | (.68) | (1.22) |
| | 자살생각 | 4.31 | 5.13 | 4.73 | 4.11 | 4.51 |
| | 비경험집단 | (.58) | (.92) | (1.08) | (.66) | (1.03) |
| | F 값 | 6.95** | 3.81 | 6.56 | .15 | 7.35** |
| 여 | 자살생각 | 4.13 | 4.95 | 4.36 | 4.18 | 4.22 |
| | 경험집단 | (.62) | (.90) | (1.24) | (.73) | (1.16) |
| | 자살생각 | 4.43 | 5.23 | 4.71 | 4.18 | 4.53 |
| | 비경험집단 | (.59) | (.88) | (1.27) | (.69) | (1.11) |
| | F 값 | 17.96**** | 7.21** | 6.13* | .0016 | 5.43** |

()안은 표준편차

* p<.05 ** p<.01 **** p<.0001

표 6. 자살생각경험관련변인과 자살생각척도점수간의 중다회귀분석

| 성별 | 중다 상관 계수 | R ² | R ² 변화 | F 값 |
|----|--------------------|----------------|-------------------|--------------|
| 남 | 강 박 증 | .34375 | .11817 | 10.45210** |
| | 사회적 적응능력 | .40266 | .16214 | 7.45027** |
| |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친애적 태도 | .46882 | .21979 | 7.13656*** |
| | 신 체 화 | .51084 | .26096 | 6.62059**** |
| 여 | 전체심도지수 | .60172 | .36207 | 56.75633**** |

** p<.01 *** p<.001 **** p<.0001

지각한 아버지의 친애적 태도와 신체화변인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여자 집단의 경우에서는 전반적인 정신건강 상태가 중요했다.

표-6.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행동이 우리 문화에서는 어떤 변인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인이 무엇인지 밝히려는 목적에서 일반 고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주로 응답자의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여러 가지 심리-환경적 변인이 이들의 자살생각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생각경험 집단은 비경험집단에 비해 정신건강상태가 불안정했다. 특히 어느 특정 소검사에서 차이를 나타내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집단간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는 자살생각경험집단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심리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는 표준화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가 병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검사도구의 표준화와 이를 통한 좀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져야겠다. 또한 현재 고등학생들의 교육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 시기에 불안정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악화시켜 자살에 대한 생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1. 고교생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

그러나 고등학생이라는 발달적인 특수한 시기로 인해 몇가지 점에서 독특한 결과는 보였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발달과업으로 이 시기의 자아정체감형성문제가 자살에 대한 생각에 중요

한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했으나, 연구결과 몇가지 하위척도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그 정도가 예상과 달리 약했다. 이와같은 결과는 아마도 이 시기가 발달상에서 아직 확고한 자아정체감이 성립되기 이전단계로 정체감 위기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현재 인문계 고등학생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때 각 하위척도에서 얻은 결과해석이 가능하다. 즉, 이 시기는 실제 개개인의 개성(독특성)이나 사회성보다 학교생활에서 적응능력과 대학진학, 또는 학과선택 등 진로결정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 따라서 각 하위척도 중 사회적 적응능력, 자아수용, 그리고 미래계획등의 영역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인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으로인해 본 연구결과를 대학생이나 기타 실업계 고등학생등에 일반화시키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서 남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기존의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즉, 자살생각 비경험집단에 비해 자살생각경험집단은 부모가 보여주는 애정과 보호의 정도가 낮다고 지각했다. 그러나 흥미있는 결과는 가부장적인 우리문화에서 부모의 권위주의와 연결되어 자녀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 부모의 통제성이나 엄격성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오히려 자살생각경험집단이 부모의 통제나 엄격성이 적다고 지각하는 경향도 보였다. 이것은 한국인의 자살기도와 그 사회문화적 특성을 연구한 이만홍 등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다. 그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자살행동을 부모의 권위주의와 '효'에 의해 억압된 적개심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역동성으로 분석하였다(이만홍 등, 1982). 이와같이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은 그의 연구가 20대후반의 연령층 및 주로 지방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데 비해 본 연구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발달상 독특한 한 시기(고교생)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비록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아직 사회적 역할 및 심리적 성숙등 많은 측면에서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적인 고등학생에게 부모의 통제나 엄격한 태도가 오히려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통제나 엄격함의 수준이 낮다고 지각하는 자녀들은 그들이 부모로부터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 자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살생각이나 자살행동을 부모의 관심을 끌기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할 수 있다. 자살기도 청소년의 대부분이 부모나 가족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가정밖보다 그들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옥내에서 자살을 기도하였으며, 또한 자살단서를 미리 남기고 자살행동의 심각성정도가 경미하다는 결과도 이런 측면을 시사하고 있다(민병근 등, 1986). 따라서 정체감이 정립되고 부모로부터 신체적 상태 뿐만아니라 심리적,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지는 청년후기(19~24, 25세)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이 일찍 달성되는 서구사회의 경우,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후속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제, 핵가족화와 더불어 변화하기 시작한 사회문화적 특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자녀중심의 사고와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왜해현상은 권위주의적 가부장제에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큰 서울의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진 본 연구와 전통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지방 또는 교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네째, 자살생각경험집단과 비경험집단을 구분해주는 변인이 자살생각의 심각성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했다. 그 결과, 남자집단에서는 강박증, 사회적응능력, 지각된 아버지의 친애적 태도 및 신체화가, 여자집단에서는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중요한 변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비록 중다회귀분석에서 통계적 의의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하더라도 그 이외의 변인들 역시 여전히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설명하는데 관련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회귀분석의 통계적 절차도 단계적(stepwise)방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여도가 높으면서도 변인간의 상호상관이 높은 변인이 최종 결과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자살 일반과 관련된 논의점.

첫째, 본 연구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청소년 자살 현황 등과 비교하여, 앞으로 자살에 대한 위험요인(risk factors)을 탐색하는데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15 ~ 19세 사이 청소년 인구 10만명당 11.3명이 자살하며(1988년의 통계), 이는 전체 사망의 14%를 점유한다(미국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1991). 또 이 비율은 1960년에 3.6명에서 1988년에 11.3명으로 거의 4배 정도 증가한 것이며, 사실상 자살은 보험금 지급거부 등 문제로 인하여 실제보다 과소보고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청소년 자살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직 그 비율이 적고 정확한 통계가 미비한 한국의 경우에도 앞으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살을 증가는 핵가족화, 소회현상, 이혼·별거 등 파괴된 가정, 자녀학대, 지나친 경쟁심, 학업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등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비슷한 증가 현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자살에 대한 위험요인」들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진다. 즉, 신경전도체의 불균형과 유전적 소질(Ray, 1986), 자기 효능감과

문제해결 기술의 부족(Cale, 1989), 성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Deykin, Alpert, & McNamara, 1985), 정신 질환, 총기류의 휴대 여부, 약물남용(Brent 등, 1988), 부모의 이혼 등 가족 붕괴(Dorpat, Jachsm, 과 Ripley, 1985), 그리고 실업과 파업(Platt, 1984) 등이 있다.

둘째, 청소년의 자살의 위험요인을 탐색하는 방법으로는 흔히 성인의 경우에도 쓰이듯이, "심리적 사체해부"(Psychological autopsy)가 유용하다. 이 방법은 자살한 청소년의 가족, 친지, 또래 들을 심층적으로 면접하여, 알콜남용, 이전의 자살기도, 우울증·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반사회적 및 공격적 행동, 자살행동에 대한 가족역사, 그리고 자살에 사용된 총기류의 소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자살 결행이나 자살기도에 대해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사들이 숨기거나 무시하기 보다는, 심리적 사체해부에 적극 협조하여 보다 진전된 청소년 자살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Garland와 Zigler, 1993).

세째, 청소년 자살과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로 궁극적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방 프로그램은, 교과과정(curriculum)에 근거한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하나의 사회정책으로도 발전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일차적 예방(우울증 치료, 문제해결 능력 향상, 약물 오남용 방지, 총기류 통제,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과 이차적 예방(위험한 청소년의 발견과 치료, 위기관리, 가정·학교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

3. 본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한 시기에 횡단적으로 실시되어 자살생각경험과 몇몇 변인과의 관련 여부를 보여주고 있으나 여러 변인간의 역동성 및 심화

과정을 알아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언제 누구에게 자살행동이 나타날지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동일대상에 대한 종단적연구를 통해 자살행동의 선행요인과 그 전개양상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Calson 과 Cantwell (1982)의 연구에 근거하여 자살행동을 자살생각에서 자살행동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연속선으로 가정, 자살생각을 측정할 때 그 심각성 정도의 측정정보는 자살생각을 지녔는지 여부에 중점을 둔 단일질문에 의한 집단구분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살생각-행동의 연속가정을 반대하며 생각과 행동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여 접근하려는 연구자나, 생각의 심각성에 따라 질적 차이를 각각 달리 부여하려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단순하고 편협된 방법이라 비판받을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각 개인의 무의식차원에 있는 자살생각이나 가능성을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eck (1979)의 자살에 대한 생각척도를 병행하여 사용하였으나 이 척도 역시 자살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및 측정 방법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통합된 연구가 필요하다.

세째,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인문계 주간 고등학교 1,2학년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실업계 및 기타 청소년후기의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전국적 양상, 기타 한국청소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 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김명정(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실태조사(Ⅰ). 개인집중조사에 의한 소견. *정신건강연구*, 1, 1-40.
- 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김명정(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실태조사(Ⅱ). 집단심리검사에 의한 조사. *정신건강연구*, 1, 41-50.
-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심리-가족관계 및 집단성격*, 서울 :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 민병근, 이길홍, 김현수(1979). 한국청소년 학생의 자살충동 및 자살기도움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한국의과학*, 11(2), 35-42.
- 민병근 외 6인(1986).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자살양상에 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한국의과학*, 18(1), 20-29.
- 이만홍, 이성훈, 신동범(1982). 한국인의 자살기도와 그 사회문화적 특성. *최신의학*, 25(8), 67-74.
- 원호택, 이민규(1987).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임상심리학회지*, 6(1), 22-32.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 The Scale for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352.
- Blumenthal, S. T., & Kupfer, D. J.(1988). Overview of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strategies for suicidal behavior in young peop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1), 1-23.
- Brent, D. A., Perper, J. A., Goldstein, C. E., Kolko, D. J., Allan, M. J., Allman, C. J., & Zelenak, J. P.(1988).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e : A comparison of adolescent suicide victims with suicidal inpati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5, 581-588
- Calhoun, J. F.(1972). *Abnormal psychology*, New York : Random House.
- Calson, G. A., & Cantwell, D. P.(1982). Suicide behavior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 886-891.
- Cole, D. A.(1989). Psychopathology of adolescent suicide : Hopelessness, coping belief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248-255
- Davis, P. A.(1983). *Suicidal adolescents*, Springfield, Ill : Charles, C. Thomas.
- Deykin, E. Y., Alpert, J. J., & McNamara, J. J.,(1985). A pilot study of the effect of exposure to child abuse or neglect o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2, 1299-1303
- Dorpat, T. L., Jackson, J. K., & Ripley, H. (1965). Broken homes and attempted and completed suicid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 213-216
- Feden, L. (1982). *Psychosocial aspects of depression*. Wiley : Chichester, England.
- Frederick, T.(1971). How suicidal behaviors are learned.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25, 37-55.
- Friedrich, W. R., Reams, R., & Jacobs, J. (1982).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 402-407.
- Friedman, R. C. et al(1984). Family history of illness in the seriously suicide ado-

- lescent : A life cycle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4, 390-397.
- Garland, A. F. & Zigler, E.(1993). Adolescent suicide prevention : Current research and social policy implications. *American Psychologist*, 48(2), 169-182.
- Howton, K.(1982). Attempted suicid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23, 497-503.
- Litt, I. F., Cuskey, W. R., & Rudd, S.(1983). Emergency room evaluation of the adolescent who attempts suicide : Compliance with follow-up.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Care*, 4, 106-108.
- Madison, A.(1978). *Suicide and young people*. New York : Seabury Press.
- McAraney, E. R.(1979). Adolescent and young adult suicide in the united states : A reflection of social unrest?. *Adolescence*, 14, 765-774.
- Miller, J. P.(1975). Suicide and adolescence. *Adolescence*, 10, 11-24.
- Paykel, E., Myers, J., Lindenthal, J., & Tanner, J.(1974). Suicidal feelings in the general popul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4, 4, 460-469.
- Pfeffer, C. R., Plutchik, H. R., & Jerritt, I. (1979). Suicidal behavior in latency-age children :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8, 679-692.
- Pfeffer, C. R.(1981). The family system of suicidal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5(3), 330-341.
- Platt, S.(1984). Unemployment and suicidal behavior :A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9, 93-115.
- Roy, A.(1986). Genetic factors in suicide.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2, 666-668
- Simons, R. L., & Murphy, P. I.(1985). Sex differences in the causes of adolescent suicide ide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5), 423-434.
- Swanson, W. C., Harter, C. L., Breed, W., Serigner, C. L., & Harden, A.(1971). *Barriers to the use of suicide prevention centers*. Final report to the National Institute for Mental Health, Washington, D. C.
- Tischler, C. T., & McHenry, P. C.(1982) Parental negative self and adolescent suicide attemp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 404.
- Wodarski, J. S., & Harris, P.(1987). Adolescent suicide : A review of influences and the means for prevention.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32(6), 477-485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Suicidal Ideators

Seong-Lim Yoon and Gene Yoon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ed variables of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in Korea. A questionnaire on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was administered to 634 high school students (305 males, 329 females) from Seoul area. Their experience of suicidal ideation were measured and then only for the suicidal ideation experience group, Scale for Suicidal Ideation(Beck, Kovacs & Weissman, 1979) was tested. Also the survey contained items pertaining to mental health, identity, accademic grade, stress on school achivement and perceived child-rearing patterns. ANOVA has shown that the suicidal ideation experience group was lower in mental health level and has higher stress on school achivement than the non-experience group. Also suicidal ideation experience group showed relatively low ego identity level and perceived that they receive a little love and care from their parents.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bsession, social adaptation ability, perceived parent's love, and GSI (General Severity Index) were reliable prominent variables that predicted the severity of suicidal ideat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some common factors affected experience of suicidal ideation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experience of suicidal ideation might be associated with general maladjustment in their everyday life.